

# 부시맨의 나라, 나미비아에서 본 아프리카의 미래

우리나라의 표준화시스템 전수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정책 필요

“기술표준원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열린 제18차 ARSO총회에 스폰서 자격으로 참석하여 KATS-ARSO 간 협력현황을 발표하였다. 또한 ARSO 임원진들과 2011년 국제표준인프라협력사업(ISCP)의 성과와 2012년 표준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준수 기술표준원 표준연구기반과 연구사의 생생한 참가 후기를 심는다. <편집자>”





나는 왠지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 영화 <아바타>의 파란색 피부의 여 주인공 네이티리를 만날 것 같은, 아무 근거 없는 상상을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출장준비를 하였다. 사실 아프리카 여인의 피부가 파란색일리 없지 않은가! 어쨌거나 나는 나미비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위키백과 등 인터넷을 뒤졌지만 기본적인 정보밖에 접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모 방송사에서 방영했던 '김병만 정글의 법칙-악어섬 편'을 보면서 나미비아가 부시맨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곳이 매우 친근하게 다가왔다. 부시맨의 나라에서는 USB 등 IT제품보다 콜라 한 박스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혼자 피식 웃었다. 조금 비약하자면 아마도 평상시에 큰 덕을 쌓거나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비행시간만 무려 21시간이 걸리는 나미비아를 쉽게 방문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나미비아는 과거 영국,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식민지였지만, 현재는 아프리카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두루 안정되어 있으며 특히 독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에서 나미비아항공(Air Namibia)으로 갈아탈 때 승객의 대부분이 독일인들이라 매우 놀랐는데, 승객 비율이 독일인 97%, 나미비아인 2%, 한국인 1%로 비행기 내에서 나미비아인과 함께 이방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나미비아항공사 승무원들의 이방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빈 좌석을 침대처럼 활용할 수 있었다. 여행 전 일반좌석 요금이 무척 비싸 불만이었는데, 1등석 서비스를 받으면서 그 기분은 오히려 약간의 즐거움으로 바뀌었다.

### 풍부한 천연자원에 근면과 성실함 가미돼야

2010년부터 기술표준원은 ARSO와 MoU를 체결하고, 국제표준 인프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 총회 기간 중 KATS-ARSO 간 임차회담을 한 후 양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2011년 6월 아프리카 5개국 9명의 국가표준화기관 CEO들을 초청하여 그들로부터 각 나라의 표준인프라 구축을 위한 우선 지원 분야를 논의하였고, 10월에 ARSO 10개국 17명의 국가표준화기관 또는 적합성평가 관련 기관 실무자들을 교육한 바 있다.

2011년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미비아의 수도 빈트후크에서 개최된 제18차 ARSO총회에 기술표준원은 스폰서 자격으로 참석하여 KATS-ARSO 간 협력 현황을 발표하였고 이어 ARSO 임원진들과 2011년 국제표준인프라협력사업(ISCP)의 성과와 2012년 표준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 참가로 한국의 표준화제도를 효율적으로 개도국에 전수하고 표준화 분야의 친 한국형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위 표준전쟁이라고 일컫는 국제표준 시장에서의 우방국을 확보하는 등 표준과 관련된 우리 기술과 제품을 아프리카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계기를 만들었다.

나미비아는 도로인프라, 도시구조, 치안문제 등 아프리카지역에서 비교적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으며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수산업이 발달된 나라이다.

ARSO 주최 측에서 특별히 시간을 내어 시내관광과 다이아몬드공장을 시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 채석작업이 대륙붕에서 200km 떨어진 바다에서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계자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광산지대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기술과 환경에 대한 철학이 공업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에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립박물관을 관람하면서는 그 수준이 너무 열악해서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만든 박물관만도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박물관 외관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용물 또한 신문기사를 스크랩한 후 코팅해서 전시할 정도이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이런 상황은 선진국들이 자원 확보에만 막대한 경비를 들이고 있을뿐 그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어쨌거나 이렇게 허술하지만 박물관을 만드는 데 열의를 갖고 그들만의 문화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미래를 향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면서 1950년대 전쟁 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상황을 떠올렸다.

1955년 10월 한국을 돕기 위해 UN에서 파견 나온 한국재건위원회 특별조사단장 인도대표인 메논(Menon)이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내린 결론이 "쓰레기통에서 과연 장미꽃이 피는가?"였다고 한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잘사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특유의 근면과 성실한 태도로 재건을 위해 노력했고, 정부의 효과적인 산업·과학정책에 힘입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우리 회의참가자들은 환담 중에 아프리카국가들도 그들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력자원에 근면과 성실함이 가미된다면 한국처럼 단기간의 고도성장까진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배는 굶지 않으리라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소유한 풍부한 천연자원이 부럽기도 했다.

### 원대한 선진화 비전, 빈약한 액션플랜

ARSO 총회기간 동안 UNIDO, AU, 독일 컨설팅기업 giz 등 회의에 참석한 많은 非 아프리카 회원국들과 식사나 휴식 중에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자주 있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옛날에는 한국이 아프리카보다 못살았는데 엄청난 발전을 하였고 이는 기적이다. 아프리카지역이 한국의 표준화시스템을 전수받아 하루라도 빨리 발전된 아프리카를 보고 싶다"는 등의 이야기를 종종 했다.



▲ ARSO 의장(Dr. Magelli)과 혼담 후 기념촬영을 했다.



ARSO 지도부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표준화를 통한 아프리카 회원국의 선진화 비전은 정말 대단했다. 많은 액션플랜(action plan)과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와 추진체가 빈약하다는 것이 안타깝기도 했다. 한 예로 케냐의 발표자는 케냐의 그린벨트 운동(Green Belt Movement)에 대한 야심찬 계획과 'green'에 대한 철학적인 내용을 인용하면서 훌륭하게 발표를 해서 어떤 액션플랜이 나오는가에 귀를 기울이게 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도출된 그린벨트 실천운동이 '산에 나무심기'라는 용두사미식 결론이었다. 우리를 포함한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UN기관이나 독일의 giz 등 관계자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고 프로젝트 기금사용의 투명성 부분도 믿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아마 이런 반응은 아프리카지역 도처에 비리가 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아프리카 각 나라마다 분위기나 개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 나라별 발언권의 수위도 각 나라가 사용하는 언어만큼이나 다양했다. 특히 ARSO 지도부의 재정운영 투명성에 대한 질책,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보면서 ARSO 회원국들의 녹록치 않은 현실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다.



▲ 나미비아 NSI(표준화기구) 회장과 의 환담 및 식사장면.



▲ 나미비아 표준화기구 계량측정기관(Metrology) 앞.

### ARSO 회원국 개별 특성 파악 후 고객화전략 필요

이번 회의를 통해 느낀 점은 첫째, ARSO와의 협력 기반은 不可近 不可遠(불가근 불가원)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ARSO 회원국의 개별 특성을 파악한 후 고객화(customizing)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이지리아는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전자파(EMC) 시험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나미비아 표준화기구인 NSI는 한국의 표준화와 적합성평가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나라와 더욱 더 긴밀한 협력을 희망하였다. 둘째, 아프리카지역은 현재 표준화할 산업 분야에 대한 우선순위가 '농업>어업>산림>관광' 부분이므로 우리나라의 표준화 프레임워크(frame-work)를 전

파하되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체육부 등과 협력하여 아프리카 공략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등의 표준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래에 블루오션이 될 아프리카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표준 관련 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ARSO 회원국의 표준전문가 풀(Pool)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요구사항과 특성을 파악하여 아프리카지역에 우리나라의 표준화시스템 전수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국격을 높이는 정책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T&S**